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4. 3. 20.(수) 16:00
- 장 소 : 정책세미나실
- 안 건1 : 2024년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 심사
 - 참석자 : 이돈영 (위원장), 김예찬 (위원)
김기현 (위원), 이수희 (위원), 양기열 (위원)
 - 배석자 : 권인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세은 (의원),
김승엽 (의원), 이경구 (의원), 이동식 (의원),
김환철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진(직원), 김선민(직원)
- 안 건2 : 2024년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 심사
 - 참석자 : 이돈영 (위원장), 김예찬 (위원)
김기현 (위원), 이수희 (위원), 권인경 (위원)
 - 배석자 : 김윤희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경 (의원),
신현일 (의원), 장연순 (의원),
남영란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대형(직원), 정고은(직원)

(회의시작)

○ 간사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의정팀장
△△△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핸드폰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및 참석 위원 소개 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먼저 하고 이어서
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에 의거 공개 모집된 민간위원 6명과 구의원
1명을 포함하여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1월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으며, 동 규칙에 따라 금년도 위원회 구성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참석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민간 위원님들은 연장자 순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에 참석해 주신 은평구의회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 위원장님께서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을 맡은 △△△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작년에 한번 뵙고 또 뵙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간사께서는 심사기준과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간사 △△△입니다.

먼저 심사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은평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출장의 필요성과 방문 국가, 방문 기간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 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출장 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 상에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5조와 동규칙 별표의 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1 이상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4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장지는 동유럽의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이며 출장 인원은
12명입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방문국의 사회복지, 문화예술, 주민참여 분야 등
정책 우수 사례를 확인하여 은평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귀국 후에는 출장의원 개인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아울러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9대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심의를 위해서 시간내어 참석해 주신 심의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간략하게 공무국외출장 준비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여러 차례 행정복지위원님들과 사전간담회와 회의를 통해서 공무원외출장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구의 현황 분석과 정책사례 조사를 병행한 결과, 우리 구는 인구와 예산, 시설 등에서 복지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보완 및 정책 제시 필요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2월에는 대행사 모집 공고 및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업체를 선정하여 출장지 및 세부 일정 조율에 착수하였습니다.

의원과 직원, 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고심하여서 출장 계획을 수립하였고 심사위원님께서 보충 자료와 함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립된 계획에 따라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각 계층의 전반적 사회복지 분야와 지역 특색과 연계한 문화예술의 다양성 콘텐츠를 경험하고 우리 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귀국 후에도 업무 분장에 따른 개인별 결과보고서 작성과 조례입안, 연구단체, 정책개발 토론회, 유사 정책 사례 비교 방문 등 의정활동 연계를 통해서 성과 있는 공무원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보충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주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위원님께서 질의 응답하실 것 있으면 질의응답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모두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외출장 계획서를 보니까 옛날하고 완전히 다르게 짜여져 있어요.

옛날에는 사실상 이게 외유성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감이 들 정도로 궁, 무슨 바르세이유 궁, 또 무슨 광장, 이렇게 관광지 위주의 플랜을 짰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남양주 같은 데는 문제도 생겼고 그러는데 우리
요번에도 계획서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상당히 계획적으로 좀 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단지 걱정스러운 건 이렇게 막 그냥 하루에 두세군데씩 이렇게 돼
있고 먼 거리를 갖다가 이동하는데 이게 좀 피곤하지 않겠나 싶어요.
너무 이제 뻑뻑하게 일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좀 세심하게
좀 보셔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위원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난해 지적,
저희 심의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많이 정말 반영이 된 것 같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면담자들도 어느 정도 다 정해져서 이렇게 다
날짜하고 이 체크 상황까지 써주셔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뭘 할 거다,
라는 것도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구의 관련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연결을 해놓고
하고자 하는 목표가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저도 잘 짜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에도 어쨌든 이제 다녀오셔가지고 보고서도 제가 봤었는데
굉장히 좀 잘 그래도 정리를 하고, 어떤 것들을 좀 보고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민들에게도 전달하려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좀 당연히 이제 그렇게 보고서도 잘 쓰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보면 일정에 마지막에 보면 이제 비교 방문에 대한
소견발표간담회 같은 것도 이제 좀 진행하신다고 되어 있던데 이런
내용들도 함께 보고서에 넣어서 좀 현장감 있게 좀 현장에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구민들이 좀 살펴볼 수 있도록 나중에 보고서 작성하실 때
거기 넣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의견을 내실 게 안 계십니까?

○ △△△위원

안계시면 제가.

○ 위원장 △△△

네, 한번 말씀하세요.

○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입니다.

질문,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사실 국가만 보고서는 저는 처음에 이제 동유럽 패키지에 유사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계획이나 이런 거는 많이 참 연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복지에 관한 이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가 가서 보고 비교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복지가 특히 정책 부분이지 않습니까? 비용이 반드시 수반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여기 현지 조사는 하셨겠지만 정책에 관한 조사도 조금 더 탄탄히 해 주십사 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싶어요.

사실 여기 전통시장 방문 계획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전통시장 개발에 관한 법률이 이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재건축되거나 재개발되거나 이렇게 색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기에는 쉽지 않은 현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 방문을 하셨어도 이런 정책을 비교 분석하시려는 시각을 가지고 가시느냐, 아니면은 단순히 이제 현지 조사는 끝났으니까 가서 보겠다 라는 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가시느냐에 따라서 아마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실적인 법안과 지금 방문하시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좀 선진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시고자 하실 텐데 그런 선진적인 현상 뒤에는 선진적인 정책과 법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조금 더 염두하시면은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국외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

답변을 좀 하실 거예요?

○ △△△의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저희 은평구가 지금 전통시장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대림시장, 그다음에 이제 연서시장이 대표적인 시장인데 특히 연서시장과 연신내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연말에 GTX-a 노선이 이제 이번에 개통이 됩니다.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굉장히 교통의 요지에 지금 전통시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그레이트 마켓홀 같은 경우를 가서 직접 보고

그쪽하고 같이 접목을 좀 해서 벤치마킹을 하면 조금 경제 활성화나 그런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보고 와서 잘 접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걸 잘 보고 잘 하신다니까 나중에 보고서로 우리가 심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원.

○ △△△의원

△△△의원입니다.

좀 전에 복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복지 정책에

있어서 오히려 더 선두 주자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거에 반해서 저는 또 어떤 면을 봤느냐면 복지 정책 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출산이 좀 심각하잖아요.
근데 체코하고 헝가리는 저출산에 있어서 40% 정도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관방문을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보면 6박 8일 동안에 아마 눈으로 보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연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저출산에서 벗어났는지도 좀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가족 정책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우리나라 저출산의 일환으로 부모수당, 그리고 아동수당 이런 걸
주잖아요.
근데 아동수당을 우리나라는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체코나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한 90년도, 1990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좀 더 안정된 그런 정착된 그런 사회
구조를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정책하고 출산, 저출산 관련된 부분까지 좀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런
심의위원회에서도 주시는 말씀 염두에 두고 가서 중점적으로 또 그런
부분을 새기고 보는 부분도 있지만요, 저희가 사실은 6박 8일
일정이지만 한 달가량 볼 수 있는 분량을 다 보고 오려고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말씀 더 들을게요.
마이크 좀 주세요.

○ △△△위원

네, △△△입니다.

저는 작년에 학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올해 이제 처음 해보는데요.

이게 이제 국민적으로 이제 봤을 때 정서상 동유럽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왜 동유럽으로 했는지를 좀 선명하게 좀 조금만 보장을 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정도 비행기도 오래 타셔야 되고 3개국 되게 힘드시게 일하시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받으시면 너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복지 선진 시설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좀 이게 그런 문구보다는 이렇게 좀 구체적인 뭔가가 있으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왜 하필 동유럽이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또 미국이라고 얘기하면 또 미국도 타할 수 있는 거고, 지역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기가 이제 우리보다 정책적인 문제가 정책적인 거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또 그런 복지 문제, 이런 전반적인 정책이 더 우리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리로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의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논의가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1월달에 사전 논의가 있었고요.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직원들과 서로 이제 상의를 하고 서로 논의하고 토론한 결과 동유럽이야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와는 달리 옛날부터 사회복지의 역사가 굉장히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가 행정복지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걸맞게 그러면은 그 복지에 관해서 좀 발달한

나라를 한번 선정을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고요.

헝가리 같은 경우도 지금 초고령화 우리나라도 물론 겪고 있지만요, 저출산 문제, 굉장히 세계적으로 그렇겠지만 헝가리도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령화에 따른 그런 노인 복지, 이런 정책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지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GDP의 약 한 33% 정도를 사회복지 예산으로 지출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 사회복지가 발달하는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코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런데 이 장애인을 완전한 사회보장으로 해가지고 장애인 정책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장애인의 인식개선, 권리보호 같은 그런 정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한 번씩 하셨으니까 발언하실거예요?

○ △△△위원

감사합니다.

심의위원 △△△입니다.

작년에 똑같은 심의를 오랫동안 해서 이번 심의계획에서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외유성이 조금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하라고 해서 이 공무출장을 아마 기관을 굉장히 협의하시는 데 오랜 시간이 들인 걸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덧붙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서 저도 이 말씀 진짜 좀 드려야겠다, 아까 전에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선행학습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요, 학생들도요.

그러면은 그냥 본 수업을 듣는 것보다 훨씬 2배, 3배의 효과를 낳기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정책에 대해서 요즘에는 구글링 하거나 아니면 또 미리 인터넷 통해서 조금 정보를 얻는다고 하면 조금 더 잘 배워놓고 또 거기 가서 궁금한 사항은 또 현장에서 여쭙보고 또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각 관심사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사후에도 이번에 상임위가 또 개별적으로 갑니다. 각 나라도 다르고 가는 분야도 다릅니다. 저는 근데 바라컨데 이 간접 경험이 가지 못한 분들도 경험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후에도 이 간접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좀 교류의 장이라든지 아니면 보고서를 조금 더 문서화해서 의원님들께서 열람을 하더라도 그냥 열람만으로 마치 갔다 온 것처럼 좀 교육이나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

네, 마이크 주세요.

○ △△△위원

답변 주신 의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출산 정책까지 보고자 하신다고 하시니 제가 반가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사람은 당연히 살기 좋은 환경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가 장애인 거주 비율은 타구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게 결코 장애인이 살기 좋은 구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이 살기 좋으면 아이들이 또 살기가 좋습니다. 휠체어가 가기 좋은 길은 유모차도 가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 구가

살기 좋은 구라면은 아이들 비율과 장애인 비율이 함께 높아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 비율만 이제 거주 비율만 전국 서울시에서 3위라는 것은
사실 우리 구에 있는 서울재활병원의 역할이 큼니다.

공공재활병원이 서울시에서 유일한 공공재활병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주위로 사실 장애인들이 당연히 이사를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활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실 가신다면은 지금 어쨌든 우리 구의 구민들이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으니 장애인도 살기가 좋아지면 아이들도 살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출산이나 이런 정책에 있어서 훨씬 더
반영하기 좋은 부분을 많이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많이 보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 △△△의원

네, 위원님 말씀 좀 귀하게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저희도 체크, 헝가리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또 하고 가게
될 겁니다, 우리 △△△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우리가 국외출장을 가보니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열정적이셨냐면요.

기관 방문하는데 질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사실 열정을 좀 가지고 기관 방문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장애인 복지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말씀 좀 청원을 드리면
가고자 하는 곳 체크 사회 노동부 그걸 보니깐요.

제가 그냥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는 장애인 일자리를 거의 전담을
해요.

기업의 몇 프로 이상을 의무 고용하듯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진국 복지하면 저희보다 낫을 거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현장에 가서 보면 우리보다 나은 것도 있고 우리보다 부족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은 체크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체험을 한 바에 의하면 저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보고 배울 게 많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출산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든 접근 방법이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헝가리 같은 경우는 보니까요, 보장 차원에서 접근을 해요. 그것이 어떤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결론은 저출산에서 40% 정도 증가했다, 라고 하면 저희가 보고 배울 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보고 갑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조사도 하셨네, 의원님들 그걸 가시느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개별 업무보고 내용이 있잖아요, 개별 업무 내용.

가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또 이제 하시긴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 외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논의가 된 출산, 또 그 외에 또 교육, 그다음에 자원 순환, 이런 것도 같은 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 거지만 좀 보실 수 있으면 전부 다 나라가 다르니까 보고 와서 비교 검토도 좀 하고 그래 그런 내용으로 이번에 공무를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이 다 하신 것 같은데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추가 질문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심사 의견서를 작성할 차례예요.

근데 여기서 관계 공무원들은 전부 다 이석해서 바깥에 좀 나가 주십시오.

그 관계공무원만 제외하고.

우리 심사위원끼리 해야 되니까.
들으면 안 되니까 잠깐 나가 계십시오.
(의원 퇴장)

(비공개회의 시작)

○ 위원장 △△△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을 했으니까 이제 찬반을 갖다 바로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어떻게 돼요?

○ 간사 △△△

아니 찬반으로 바로 진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외공무는 간다, 못 간다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 심사위원들은 사실은,
가고 못가고 하는 건 우리가 결정을 못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내용,
이제 가서 어떻게 할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검토를 하는 거니까.

○ △△△위원

가고 못가고 결정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 위원장 △△△

못해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간다, 못 간다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심사위원은 그 가는데 내용만 우리가 내용하고 그런 것만 우리가

교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 △△△위원

그럼 위원장님 만약 반대로 나오면 이거를 재수정해서 재심의 하는 건가요?

○ 위원장 △△△

그렇죠.

○ 간사 △△△

심사 계획서상에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그 부분을 수정을 하고 이제 위원회의 역할이 이제 그거거든요.

○ 위원장 △△△

근데 이게 우리가 전부 다 실질적으로 심사위원의 자격을 가지려면 가고, 안가고 까지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가서 어떠한 내용으로 이걸 비교시찰하고 올 건가 하는 것만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부결된 예가 지금까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 심사 의견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심사 의견서가 전부 다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찬성이면 찬성, 그다음에 반대면 반대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 의견이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에 대한 추가 의견, 그다음에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추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안 써도 돼요.

추가 의견은 안 써도 되고 찬성, 반대.

근데 반대할 때는 좀 왜 반대하느냐는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 △△△의원

이게 회의록에 남는 건가요?

○ 간사 △△△

지금 말씀하신 거는 비공개 회의로 회의록에 남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이제 비공개지만 회의록에는 이제 남게 됩니다.

○ △△△위원

회의록 안 남게 할 수 없어요?

○ 위원장 △△△

그거는 회의록으로 안 남게 할려면 무슨 말씀하실려고.

○ △△△위원

조금 그냥 1년 전이랑 또 애로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 그래도 이게 물가나 지금 사실 저도 이제 실무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게 예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의원님들께서 비용 문제를 그래도 덜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 지원 나오는 비용이 비행기 값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각 출자하시려는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거의 반을 그냥 본인이 거의 부담한다는 셈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몇몇 젊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경제적인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못 가겠다 라고, 그냥 보이콧 하시겠다고,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보이콧 하시겠다고 분이 계셨는데 이 딜레마가 참 어려운 게 또 한 명이 거기서 빠지면 각자 부담 20만원씩 올라가는 겁니다.

○ 위원장 △△△

맞아요.

한 사람이 빠지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 △△△위원

회의록에 안남게 하고 싶은데.

투명하게 해야 되니까요.

비용 측면이 사실 지금 현실화가 돼 있지 않는 부분 때문에 각 의원님들께서 열정이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거기와 더불어서 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또 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욕과 방문 의지에 또 맞추고자 여러 가지 사실 고민들이 있었습시다.

지금도 충분히 고민 중이고요.

참 딜레마인데 이 공무 중 국외출장을 하면서 공공기관 방문할 때는 여행보다 또 다르게 비용이 또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계획을 하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니까는 거의 한 2배 이상 듭니다.

근데 저희가 비용은 안 나오는데 또 우리 공무국외 심의위원회에서 항상 지적이 나왔던 게 공무 출장인데 외유성으로 가는 게 맞느냐, 라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더욱 더 악착같이 공공기관 섭외와 기관 방문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은 예전보다 물가 상승을 해서 아껴야 되는데 방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호텔이 4성이면 2성, 3성으로 내려와야 되고요.

그리고 버스도 그냥 일반 작은 거의 보면 승합, 거의 그냥 저렴한 가격으로 맞춰야 되고 이런 것까지는 사실 이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공통 사항입니다.

○ 위원장 △△△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았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기 부담들이 상당히 간다고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우리 심사위원들께서는 좀 그거에 감안하셔가지고 생각을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 △△△위원

사실 그것은 대상이야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적절성만 따지면 될 것 같고 그게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연히 왜냐면은 사실 알고 있죠.

공무원들도 지금 그래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출장지의 적절성이나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번에 작년하고 굉장히 그래도 많이 달랐다, 많이 그래도 구체화 된 자료를 미리 보내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고요, 살펴보면서도.

그래서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작성하셨습니까?

걸어가세요.

바로 가능합니까?

○ 간사 △△△

네,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죠.

○ 위원장 △△△

위원님들이 마음이 좋아서 전부 다 찬성하셨습니다.

○ △△△위원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적절한 내용이었으니까....

○ 위원장 △△△

위원님들 심사 의견을 종합한 결과는

찬성이 다섯분

반대가 제로

이렇게 해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6조에 따라서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공개회의 종료)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직원께서 의견서를 받아주세요.

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재무건설위원회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회의시작)

○ 간사 △△△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

간사께서는 심사위원 및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간사 △△△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신규 위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2024년 3월 13일자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은 2024년도 재무건설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심사 종료
시까지입니다.

다음 참석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에 참석해 주신 은평구의회 관계자 분들을 소개해 드
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기준은 행정복지위원회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하여 간사님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무건설위원회 출장계획서도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5조와 동 규칙 별표의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는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공무국외 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장지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이며 출장 인원은 11명입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자원순환 및 탄소 중립 정책의 선도 국가인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제도 및 시설에 관한 벤치마킹을 통해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을 도모하고 지방의원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귀국 후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출장 위원 개인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아울러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 출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께서는 재무건설 공무 국외 출장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심사를 위해 시간내어 참석해주신 심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2024년 재무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자원순환, 탄소중립 정책의 선도국가인 오스트리아, 독일의 제도·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출장기간은 2024년 4월 26일 금요일부터 5월 3일 금요일까지 총 6박 8일입니다.

출장국은 오스트리아, 독일이며 출장자는 은평구의회 의원 8명, 의회사무국 직원 3명입니다.

다음으로 간략하게 출장 일정 및 방문기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6일에 출발하여 오스트리아 도착 후 약 3박 4일간 슈피텔라우 소각장, 할슈타트, 잘츠부르크 재활용센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4월 29일에 독일로 이동하여 약 3박 4일간 생태신도시 림지구, 슈투트가르트 시청 방문 및 녹색당의원 면담, 반슈타트, 만하임 폐기물 에너지 플랜트를 견학하고 5월 2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출발하여 5월 3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 및 복귀할 예정입니다.

출장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산출하였으며 1인당 출장 경비 중 은평구의회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개인 부담 예정입니다.

출장경비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직원, 업체 등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고심하여 출장계획을 수립하였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관련 시설견학과 제도탐구 등 선진 사례를 경험함으로써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정책은 없는지 비교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귀국 후에도 업무분장에 따른 개인별 결과보고서 작성과 조례입안, 연구단체, 정책개발 토론회, 유사정책 사례 비교방문 등 의정활동 연계를 통해 성과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

재무건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들께 배부해드린 심사 의견서의 심사 기준을 참고하셔가지고 자유롭게 의견을 좀 나눠주시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먼저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위원입니다.

그 내용을 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까지 어쨌든 이렇게 방문지를 넣어서 되게 좀 열심히 다녀 오시리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할슈타트 같은 곳이 너무 유명한 또 관광지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좀 설명이 좀 더 잘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모든 다른 부분들은 다 어쨌든 이런 목적으로 가는 게 잘 보이는데 사실 할슈타트가 인구가 적고 은평구에 동 하나도 안 되는 작은 동네인데 우리가 이렇게 좀 벤치마킹한다라고 해서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워낙 관광지로 유명하다 보니까 구민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것들을 좀 보고 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보고할 때라도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해외 사례를 본다는 게 장점도 많이 보고 선진 정책을 배우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로부터 또 배우는 것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는 물론 탄소 중립 도시, 녹색당이 되게 오래전부터 활동을 많이 했던 도시고 되게 여러 가지 좋은 케이스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

는 역세권 개발 때문에 굉장히 갈등도 수십 년간 있었던 그런 동네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은평구도 이제 GTX 들어오고 여러 가지 좀 역세권과 관련된 개발이 있고 거기에 따라 당연히 이제 좀 환경 파괴나 어떤 개발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라든가 갈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갈등이 지금 슈투트가르트가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은 좀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갈등이 관리가 됐는지 조정이 됐는지 또 그게 잘 되지 않았더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이제 약간의 불만인데요.

이거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앞에 이제 행정복지위원회 하고 계획서하고 보충 자료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은 아무래도 뭔가 좀 구체성이 떨어져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왜냐면은 행정복지위원회 계획서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개인별로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가 전부 달라요.

물론 이제 그게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계획서를 보는 입장에서는 좀 구체성이 떨어져 보이는 부분들이 약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복지위원회는 교통편이라든가 가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런 거 이름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어떤 과에서 이런 업무들을 하고 그 과의 어떤 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는 방문지인지 이런 것들을 좀 되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계획서 자체는 이미 이제 회의에 올라온 거니까 수정은 안 되겠지만은 보충 자료도 어쨌든 회의 끝나고 이제 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라갈 텐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강화하셔서 올리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 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문제점은 전부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위원들이 또 질문하실 게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 출장 개인별 업무 내용에 있어서 말입니다. 다섯 위원께서 이제 자원순환 도시계획 우수 정책 발굴 이래가지고 돼 있는데 각 개인이 또 여기서 세분화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 계획들이 있습니까? 이게...

○ △△△의원

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가 좀 자세하게 업무 분장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금 위원님들 구성에 보면 저희가 2023년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연구모임을 의원 연구 모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우수 정책 발굴에는 우리 △△△위원님과 △△△위원님, 장현순위원님, 정병호위원님 주로 작년에 연구 모임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좀 관심 있는 부분 쪽으로 좀 접근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가 12월에 이제 완공이 되고 이제 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좀 관심 있어 하시는 최락의위원님 박성도위원님 그리고 저 △△△는 그런 자원 순환이나 도시계획 쪽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또 다녀 와서 많은 구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각자 위원님께서 다른 분야를 보고서를 갖다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좀 하시죠. 마이크 좀 주세요.

○ △△△위원

지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오스트리아 독일 방문은 최근 5년간에는 없었던 일인가요?

최근 5년간에는 없었던 일입니까?

○ 위원장 △△△

그건 아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 △△△위원

왜 여쭙보냐면은 이 오스트리아 1번 소각장 방문하시는 것 관련해서 올해 말에 이제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준공이 될 예정이잖아요.

사실 조금 더 일찍 가서 보셨으면 좋았겠다. 왜냐하면 올해 말에 준공이면은 기본 설계나 설비나 이런 게 다 끝난 마당이라서 이제 정말 민원 처리밖에는 안 남은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계에서는 약간 지금 좋은 것을 더 보고 오셔도 반영할 수 있는 게 사실 조금 적지 않나 아쉬움이 있어서 여쭙봤고요.

그리고 시청과 녹색당 의원 면담이 있는데 이거는 해당 시청과 이제 어떤 의원님 뵈지는 혹시 확정이 됐나요?

○ △△△의원

네 됐습니다. 혹시 그거 관련해서 저희 해당 전문위원실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도 될까요?

○ △△△위원

예.

○ 전문위원 △△△

전문위원 △△△입니다.

녹색당 의원님 쪽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컨택은 해놓은 상태이고 그쪽 의원님들 그 다음에 이제 심의위원회가 끝나면 최종으로 확정 일자와 이런 부분들은 잡을 겁니다.

네 컨택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관 방문들도 모두 다 컨택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종 우리가 통보만 다 하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제가 독일의 정치 제도를 잘 몰라서 여쭙는데 이 녹색당 의원님이 기초단체 의원이신가요?

아니면은 전국구 의원님이신가요?

○ 전문위원 △△△

시 단체조 시.

○ △△△위원

시 단체 알겠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 △△△의원

△△△위원입니다.

좀 보충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광역순환센터가 실질적으로 올해 12월에 이제 개원이 되기 때문에 좀 시기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또 상대적으로 수색에 자원순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올 12월 내년 6월이면 폐쇄되는데 이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면 좋은 것인가라고 연동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각장에 관련해서는 그런 차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전 지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행정복지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과제들을 끄집어내기가 되게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이제 투입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와 또 이제 정부가 움직여야 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과제를 끄집어내는 부분에 좀 디테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작년에 탄소제로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재무위원 4명과 행정복

지 위원 2명 해서 6명이 연구 모임을 1년간 진행을 해서 실제로 교통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녹색, 자연 환경에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실현하는 데는 외국의 사례를 갖고 오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낼 것인가가 또 우리에게 과제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들을 재무 쪽에서 재무위원들이 해낼 수 있을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직접 선진 그런 사례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은평구 정책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기후 위기나 탄소 중립이 세계적인 정말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스트리아, 독일이 독일은 이제 약간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오스트리아는 관광국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잘 선정하신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이번에 이제 12월에 이제 열리는데 그 부분도 잘 보고 오셔서 또 좀 접목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

재무건설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더라도 이 기술적인 면이 참 중요한 부서거든요.

이게 사실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기술적으로 상

당히 중요한 문제가 이게 보고 되는 거예요.

기술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될 거죠.

근데 이제 가서 보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가서 보고서 제도를 갖다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캐치를 해가지고 오는 게 이번에 비교 시찰가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가서 그런 걸 잘 보시고 또 여기 재무건설 위원님들이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자원순환이나 녹색 기후 변화나 이거는 실제로 엄청난 아젠다예요.

우리 인류가 개인이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 열심히 보시고 오시고 우리 보고서도 그거에 관해서 논문 식으로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한 말씀 하실래요?

○ △△△위원

네 △△△입니다.

저는 직업이 교사라서 자꾸 이제 교육 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제가 2015 이제 교육 개정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2022 이제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 이제 생태순환 교육이 이제 모든 교과에서 의무적으로 이제 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는 미리 하고 있겠죠.

이번에 만약에 이제 가시게 된다면은 이렇게 시청도 방문하시고 이제 의원님도 방문하시니까 그런 교육 쪽에서 또 우리 은평구에서 이런 자원순환센터도 만든다고 하니까 학교랑 연계해가지고 애들한테도 또 체험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 잘 보고 와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 △△△의원

네 저희 심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학교 연계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역촌동에 에너지 카페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금 개소식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좀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잘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가서 잘 심사숙고해서 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다른 질문 또 있으십니까?

○ △△△위원

아까도 이제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보고서를 결국 이제 갔다 와서 우리가 이렇게 잘 갔다 와서 이런 걸 배우고 왔다라는 것들이 보고서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의원 개개인의 좀 어떤 의견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나는 방식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작년에는 다 좋았는데 보고서 굉장히 열심히 쓰셨고 많이 공부하셨고 이런 것들이 다 느껴졌는데 묶어서 쓰셨더라고요.

3명이서 3명 이름으로 나가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좀 개개인의 의견들이 좀 담긴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 말씀 좀 어떻게 뭐라고 어떻게 빨리 답변하실 거예요?

○ △△△의원

네 작년에 제가 이제 공무국의 출장을 다녀오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이번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저희 위원님들 개개인 별로 정말 나름 다 소신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

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저희 위원님들 자체가 탄소 중립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이나 자원 순환 쪽으로 각자의 소견도 있고 각자의 의견들도 있고 각자의 생각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행정복지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그 일정을 딱 보니까 아까 할슈타트 경우만 이제 약간 관광성이 좀 포함되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는 딱 보니까 전부 다 관광성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보다 상당히 그 계획 자체가 좋아졌다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고 우리 심사위원님들 또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른 질문이 없으니까 추가 질문 사항 없으신 걸로 알고 우리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제 심사 의견서를 작성할 차례인데요.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이석하셔가지고 밖에 좀 나가 계시면 좋겠습니다.

○ △△△의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저희 할슈타트 관련해서 좀 한 말씀 짧게 드려도 될까요?

할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산악 호수로 되게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근데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산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호수와 산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한산 인근에 저희 천년 고찰인 진관사도 있고 한옥마을도 지금 많은 관광객분들을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행정복지에 했던 것처럼 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죠.

○ 간사 △△△

먼저 의견들 있으시면 아까처럼 말씀하시면서 마무리 하셔도 되고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은 결정 사항 찬성 반대 표기하시고 이제 추가 의견 기재하실 사항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

요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이런 자료들도 기관에서 담당하시는 분은 다르신 거예요?

○ 간사 △△△

네,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따로 작성합니다.

○ △△△위원

전문위원분들이 달라서 각자 다 따로 하시는 그 양식은 비슷한데 조금씩 내용이 달라가지고 궁금해서 전문위원분들이 달라서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

의견 제시할 게 없으면 심사 의견서를 걸어 가십시오.

해당 심사위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하고 똑같이 찬성 다섯 분이 전부 다 찬성해 주셨습니다.

(찬성위원 5명)

그러면 은평구의회 공무원외 출장 규칙 제6조에 따라서 출석위원 2/3가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